

건강 칼럼

척추측만증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앞이나 뒤에서 보았을 때 머리와 다리로 일직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측면으로 휘어진 상태를 말한다.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이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경추와 요추는 앞으로 휘고 흉추와 천추부는 뒤로 휘어진다.



**박근형**  
국모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과장

**▲ 척추측만증의 원인**  
척추측만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만곡의 지역성에 따라 기능성측만증(비구조성 측만증)과 구조성 측만증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성 측만증은 척추 자체의 이상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측만증으로서 측만증 자체에 대한 치료는 불필요하며,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 그 원인이 해결되면 측만증도 자연히 소실되게 된다. 구조성 측만증은 형태학적인 이상이 있는 것으로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약 80% 이상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측만증이다.

**▲ 척추측만증의 증상**  
대부분의 척추측만증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진다. 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병이

지만 동시에 머리와 골반에 대해 척추의 회전 변형이 동반된다. 즉 머리와 골반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척추는 비스듬히 옆을 보는 모양이 되고 그 결과 한 쪽 등이 튀어나오며 여성에게서는 유방의 크기가 달라져 보이게 된다. 그 외에도 어깨의 높이가 달라지고, 허리 곡선이 양쪽을 비교해 보면 비대칭적으로 보여 한 쪽은 잘록하고 다른 한 쪽은 뒤틀려 보인다.

**▲ 척추측만증의 진단 방법**  
척추측만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검사들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자세의 이상은 어깨, 가슴 높이의

비대칭,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쳐 있을 때, 어깨 검갑골의 한 쪽이 더 튀어나와 있을 때, 몸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골반이 평행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등을 말한다. 전방굴곡검사(등심대검사)는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등이나 허리 곡선의 비대칭 여부를 확인한다. 단순방사선 촬영은 원인 규명, 측만도 검사, 변형의 종류, 부위 및 유연성 검사, 골 성숙도 판정, 골극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연성 및 성장의 정도와 잔여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검사이다. 이외에도 자기 공명영상 검사(MRI)와 폐활량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 척추측만증의 치료 방법**  
구조성 측만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측만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방사선 촬영과 신체 검사를 통해 관찰한다. 성장기 환자에서 2도 이하의 유연한 만곡이거나, 성장이 종료된 환자에서 5도 미만의 만곡은 측만의 진행 여부를 6개월에 한 번씩 관찰하거나 성장이 빠른 시기가 되면 4개월에 한 번씩 관찰을 하기도 한다. 보조기 치료는 척추측만증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예방 또는 억제를 하는 것이다. 보조기는 척추측만증을 교정하지는 못한다. 수술적 치료는 성장기에 40~45도 이상의 만곡이 보이는 경우, 보조기 치료를 실패하여 40~45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 성장이 끝난 후 50도 이상의 만곡이 보이는 경우, 만곡이 40도 이하여도 몸의 균형이 많이 틀어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후방교정과 후방기기술 ▲전방교정과 전방기기술 ▲전후방교정과 후방기기술 ▲경인 후 후방교정술 ▲흉곽성형술 등이 있다.

사설

최고 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 우선 목표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지자체와 공공기관들도 실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흙수저'나 '벨조선'이니 하는 말이 유행된 지도 이제 어떤 십여년 세월이다. 한국사회 전체가 일자리와 관련해선 병리 현상이 심각한 까닭이다. '금수저'들은 많이 배운 까닭에 부모 세습되고 일자리도 세습되는 판이다. 보통 젊은이들의 입장에서선 위화감을 아닐 느낄 수 없을 터이다. 지금도 전북 출신 젊은이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해 상경해도 취직을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가 적지 않은 것이다.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로 나오고 있건만 지방대 출신이라며 처음부터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 인재들의 폭폭한 심정에 공감해야한다. 대학을 나왔음에도 자신이 실업자로 있을 것을 자각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고 보면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

다. 전북도가 다시 또 산(産)·관(官)·학(學)의 노력으로 취업률을 올렸다는 소식을 주었으면 좋겠다. 기업과 행정기관과 대학이 젊은이들의 취업에 마음을 쓰고 있을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매년 성과가 미미하니 답답하다. 그게 한두 번 하고 그칠 게 아니라 꾸준했으면 한다. 삼자(三者)가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만 믿어볼 구석이 라도 생길 터이다. 그리고 전북도는 정부의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해 적극 앞장서야만 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항상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전북도는 성공하는 일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저번에 새만금에 세계캠버리 대학을 유치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세계캠버리대학의 개척이 멀리 남아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일자리 창출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여기 당부할 것은 일자리 창출이 한때의 반짝 효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반짝 효과는 고용안정과 아무 상관없이 때문이다. 전북도는 매일 매일 일자리 창출에 보통 이상의 마음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양심냉장고”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후반 이경규의 양심냉장고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기억하시나요? 이 방송은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 새벽시간대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자를 발견해 냉장고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첫 회 방송에서 수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으나 어느 장애인부가 극적으로 정지선을 지키는 화면을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그 프로그램의 방영 이후 정지선 지키기는 운전자들에게 양심을 지키는 것으로 다가왔고 전국적으로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정지선 지키기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낮아졌고 급기야 2004년 77%였던 정지선 준수율이 2012년 64%로 약 13%정도 낮아졌다.

출퇴근길 주요 교차로 근무를 하다 보면 횡단보도 정지선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 슬쩍 침범, 정차해 있거나 횡단보도를 완전히 침범해 보행자

와 운전자가 실랑이를 하는 경우를 목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모습의 위반행위들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교통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또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이며 교통질서 확립의 기초인 것이다. 정지선 다음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정지선을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정지선을 안 지키고 조금이라도 앞에서 보행자도 불편하게 된다. 운전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에 있는 모든 운전자와의 의사소통이고 예의다. 오늘부터라도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진제 전주원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찰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우리 아이 찾는 ‘코드아담제’ 알고 있나요?

연일 폭폭 짙는 무더위에 전국 각지에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군산 선유도, 부안 격포, 변산, 진안 운일암반일암, 무주 구천동계곡 등 관광객들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들이 즐비하다. 이런 휴가기간의 특성상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은 만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실종아동’이다. 사람이 많고 시끌벅적한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부모는 아이를 찾기 위해 아이는 부모를 찾기 위해 무분별, 무작위로 찾아다니기 바빠 쉽게 찾기가 힘들다. 미야발생시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골든타임은 2~3시간이다. 만일 실종된 채 12시간이 지나고 나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은 42%, 24시간이 지나면 32%, 1주일이 지나고 나면 11%까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실종아동 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112에 신고를 하거나 가가

운 직원에게 알려 신속히 아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코드아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드아담’ 제도는 2012년도 도입된 지문 등 사진등록제와 위치추적제 실시로 감소 중이던 실종아동 등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어 2014년 7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주체는 즉시 코드아담 경보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수색 및 출입구 감시를 통해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내 아이가 사라졌다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코드아담’ 경보가 발령이 된다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벗어난 이들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충현 전주원산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위

물가 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북도는 물가 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관심이 다른 것에만 쏠려 있다. 지역 경제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이들이 너무 조용한데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이다.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언급조차 없으니 말이다. 그것은 물가 오름세에 아예 신경을 끄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물가 역제를 말한다. 물가가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무반응 보다는 낫다. 도내 고위 공직자들이 부자여서 그러는지 서민의 형편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근래 물가가 꾸준히 상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채소 품목들은 그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았다. 처서무렵에 내리는 비는 쓸모가 없다고 했는데 요즘 비가 연일 내리고 있다. 이러다가는 나중에 채소 품귀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지금 서민들의 표정을 보면 어둡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경제 브레인들이 서민들의 입장에서 물가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지난날 서민을 위한다는 행보를 보면 어이가 없었다. 재래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미땅한 곳에서 사 진을 찍었던 거 말이다. 그것은 이제 홍보 자료로 활용하려는 알파한 계산만이 보일 뿐이다. 연기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평소 소비자 물가의 동향을 체크하면서 인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물가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전북도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게 다 슬데 없는 기우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인플레이션이라도 일어 나면 가난한 서민들은 어떤 것인가. 날이 가고 세월이 바뀌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지만 요즘의 인상은 납득이 안 된다. 전북도는 무슨 대책이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물가 인상에 대한 변명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나오거나 같은 말 반복하면 미덥지 않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